

효행 설화 연구*

—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효행 양상을 중심으로 —

강 성 속

(인제대학교 기초대학 교수)

- I. 문제 제기
- II. 『삼국사기』 列傳과 『삼국유사』 孝
 善편에 나타난 효행의 양상
- III. 초기 효행 서사의 성격
- IV. 나오며

※ 본 논문은 2011학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논문 요약>

조선시대 교화서와 달리 초기 ‘역사서’에 실린 기사는 교화적 효과만을 위해 수집, 편찬된 것이 아니어서 효행설화라 하더라도 각각의 서사가 효행을 드러내는 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효에 대한 자세가 천편일률적이거나 무비판적이지 않다. 『삼국사기』 「列傳」과 『삼국유사』 「孝善」편 효행설화에는 (1)치절한 효행과 그 포상에 서사의 초점이 놓여 부모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설화에서부터 (2)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효행의 완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성의 서사, (3)부모가 적극적으로 자식의 삶에 관여하며 목소리를 드러내 자식의 자아실현을 촉발하는 효행 서사까지 두루 나타난다. 여기서는 후대 효행설화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자식에게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깨닫고 행동하게 하는 부/모의 모습이 나타난다.

『삼국사기』 「列傳」과 『삼국유사』 「孝善」편 효행 설화는 전형화된 효행중심 서사뿐 아니라 가족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변화하여 깨달음을 얻게 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갈등과 소통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 윤리적 효의 성격과 그 실천에 대한 궁극적 해답이 분명해지는 반면, 타고난 효자의 효행 기록은 하기 힘든 어려운 행위에 대한 감탄이 주조를 이루게 된다. 삼국시대의 효행설화는 효행의 대상이 되는 부모가 그 존재감을 드러냄으로써 효자/녀가 진정한 효를 행하게 되는 과정을 체험하게 하는데, 이를 통해 효자/녀는 자연스럽게 효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주제어: 효행설화, 삼국사기, 열전, 삼국유사, 효선편, 부모, 자기희생, 소통, 자아실현, 효.

I. 문제 제기

유전자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효는 자연스럽지 않은 행위라고 한다. 유전자가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를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손[자식/손자]을 선택하고 이를 배려하는 일[생존/재생산]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¹⁾ 물론 유전자적 관점을 인간의 ‘의식적 동기’로 유추해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도킨스는 ‘자식들의 생물학적 본성에 이타주의가 심어져 있다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이타주의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학적 유전자에는 결여되어 있으나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가 이타주의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효는 개체적 욕망보다 사회적·공적 윤리와 더 밀접한 가치라 할 수 있겠다.

자식에게 부여된 이타적 행위인 효는 생물학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동양 사회에서는 인간 윤리의 기본적인 덕목으로 인식되며, 현재까지도 절대적인 불변의 가치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고대 중국에서 효의 개념이 정립된 이후,²⁾ 이 땅에서도 현전하는 가장

-
- 1) 여성이 중년에 생식 능력을 잃는 것도 손자를 통한 유전자 전달이 유리해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전자는 자식에게 평균 50%, 손자에게 평균 25%가 옮겨지는데, 손자의 수명이 유전자 전달 비율을 역전시킬 만큼 길어지면 폐경이 오게 된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의 행위는 실제로 유전자 번영을 위한 치열한 다투고 타협의 결과라 할 수 있다. -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홍영남·이상임(역), 을유문화사, 2010.
 - 2) 周 금문이나 『詩經』, 『周書』 등에 나타난 효에 관한 글에는 생존 부모에 대한 효와 선친·선조에 대한 언급이 있다. 생존 부모에 대한 효는 ‘奉養·존경·복종’ 등으로, 선친에 대한 효는 ‘追孝’로 표현된다. 이후 공자가 『논어』에서 효의 개념을 계승·발전시켜 유교 덕목의 하나로 삼았다. 그는 부모에게 孝順하고 공경하는 것을 학업의 으뜸으로 보고, 효가 정치의 근본임을 밝히고 있다. 효에 관한 유교의 전통적 관념은 漢나라에 오면 『孝經』으로 집약된다. 효는 德이나 敎化的 근본으로 이해되었으며 인간 행위 가운데서 가장 중시되었다. 또 부모님을 섬기는 기본적인 것에서 비롯하여 立身行道하여 이름을

오래 된 역사서인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기록에서 효자/녀의 행적이 발견된다. 이후 역사서인 『고려사』 「列傳」 ‘孝友’ 편에도 효행담이 16편 실려 있다. 조선시대에 오면 효 관념의 보급을 위해 『효경』과 『삼강행실도』 등의 윤리서가 널리 간행되었고,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각종 지리지에는 효행에 대한 기록이 지속적으로 등장했으며, 『주자가례』에 따른 규범적 효행의 기준이 마련되기에 이른다.

삼국시대 이후 孝行은 公的 차원에서 끊임없이 강조되고, 포상되며, 교육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효행의 양상은 병든 부모를 위해 한겨울에 죽순을 구하거나, 손가락 또는 허벅지 살을 잘라 먹이고, 자식까지 희생시키는 비합리적이고 잔혹한 형태로 유형화되기에 이르렀다.³⁾ 『실록』에는 이렇듯 극단적 효자의 예가 소개되고 포상 받는 사례가 수없이 등장한다.

예조가 孝子로 襄陽에 사는 忠順衛 金壽永 【부모가 돌아가자 몹시 슬퍼하여 뼈만 남았지만 채소와 과일도 먹지 않고 3년간 죽만 먹었으며, 또 스스로 하늘에 맹세하는 글 132자를 지어 자기 손으로 좌우 무릎에 刺字했다.】, 杆城에 사는 校生 黃彌賢 【아버지가 병이 나자 마음을 다해 의원과 약품을 구하고, 돌아간 후에는 侍墓 살며 3년간 죽만 먹었다. 어머니가 중병을 얻게 되자 斷指하여 약에 타서 먹었는데 어머니의 병이 바로 나았다.】, 西部에 사는 樂生 金壽長 【천성이 효성스러워 부모가 병이 나자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며 정성을 다해 빌었

후세에 떨치는 것까지를 효라 하였으며 부모에 대한 효를 ‘하늘의 불변한 기준이요, 땅의 떳떳함이다.(天之經地之義)’라고 하여 우주적 원리로 승화시켰다. - 이은봉, 『중국고대사상의 원형을 찾아서』, 소나무, 2003.; 알프레드 포르케, 『중국고대철학사』, 양재혁·최해숙(역), 소명출판, 2004.

- 3) 강명관은 『삼강행실도』의 간행과 보급 양상을 살펴 그 일화가 지닌 비합리성과 잔혹성을 파악하고, 이 책의 보급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잔혹하고 비합리적인 효행, 열행을 체화하게 하여 『삼강행실도』의 일화를 모방한 사례들이 무수히 양산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효자와 열녀의 표본이자 모범으로 제시된 『삼강행실도』를 ‘약자에게 가해진 도덕의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이 체계적이고 일방적인 도덕의 교화를 비판했다. - 강명관, 『『삼강행실도』-약자에게 가해진 도덕의 폭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5-32면.

다. 나중에 아버지가 증병을 얻자 단지했는데 병이 바로 나왔다.】…(중략)… 등을 입啓하니, 旌門하고 復戶하도록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대저 아들이 부모에게 있어서나 아내가 지아비에게 있어서나 의리는 똑같은 것이다. 만일 (1)크게 無道한 사람이 아니라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즘음에 당해서는 심정이 절박해지는 법이므로 반드시 해보지 않는 일 없이 모두 해 보려고 하여, 자신의 身體나 髮膚를 생각하거나 아낄 겨를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割股하거나 斷指하거나 하는 것이 모두 다 그다지 귀중할 것은 없는 것이고, 또한 아들된 사람이나 아내된 사람으로서는 자기 스스로가 그만둘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더구나 (2)末世에 거짓이 늘어나 풍속이 야박해지고 인심이 교활하여졌으니, 그 가운데에는 본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명예를 구하기 위해 한 자도 또한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요사이 (3)綱常의 변이 잇달아 종이 상전을 죽이기도 하고 아내가 지아비를 살해하기도 하여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데, (4)시골 부녀자와 천한 노예로서 오히려 이렇게 하였으니 이는 매우 아름다운 일로 또한 천리가 없어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만일 임금이 그 고유의 천리를 인하여 충효와 義烈로 지성으로 위에서 인도하고 통솔해 간다면 吾道를 잘 따를 것이다. 어찌 대면하여 가르치고 귀에 대고 일러주기를 기다리겠는가.⁴⁾

위의 예에서도 부모가 돌아가자 시묘살이를 하면서 고행을 감내하거나 병든 부모를 위해 손가락을 자르는 효자의 효행이 드러난다. 이러한 효행이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병든 부모를 위해 신체를 훼손하는 극단적 행위는 실제로 합리적 타당성을 얻기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뒤이어 발생하는 효험, 즉 ‘병이 바로 나왔다’는 결과로 인해 효자의 異蹟은 신성시되고 보상이 따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효행을 통해 정문이 하사되고 복호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목적을 갖고 이 효행의 상투적 잔혹함을 반복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실록』에 실린 효행이나 조선후기 효자전의 내용은 거의 『삼강행실도』류 교훈서의 내용에 비견되는 끔찍한 신체 훼손과 비합리적 기적으로 귀결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듯 교훈서로 훈육되고

4) 명종 10년 을묘(1555) 3월 29일(갑자), 「예조가 효자·열녀 등을 아뢰니 정문하고 복호하도록 하다」, 『명종실록』 20집, 262면.

장려된 효행과 열행이 후대로 갈수록 점점 더 빈번하고 극단화된다는 데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史官은 두 가지 관점에서 신체를 훼손하는 효행과 열행에 대한 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斷指나 割股는 가족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절박한 상황에서 ‘크게 무도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무엇이든 시도해보려는 과정에서 귀결되는 특별하지 않은 당연한 행위이며(1), 이러한 극단적 행위가 명예를 얻기 위해 일부러 꾸민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2) 포상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시한다. 이미 이 시기에 오면 신체 훼손의 효행이 그리 대단하지 않은 보편적 행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보상을 얻으려는 사람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당시는 노비가 상전을 죽이거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綱常을 어지럽히는 사건이 일어나는 ‘末世’였기에 상투적이고 의도적인 효행이라 할지라도 본보기로 삼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3) 게다가 왕의 교화가 미치지 어려운 궁벽한 시골, 도덕적·주체적 몸이 되기에 부적합한 부녀자⁵⁾나 천한 신분의 노예가 행하는 자기희생의 효행과 절행은 임금의 덕화가 미치지 않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에 참으로 효과적인 기제이기도 했다.(4) 극단적인 효행과 열행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기는 하지만 이를 장려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안정과 교화의 효용 덕분에, 신체훼손의 효행과 그 비합리적 異蹟, 그리고 이에 따

5) 전통 유가 철학에서 도덕적으로 온전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자기의 몸을 공적인 은유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개인적인 신체가 집안과 국가, 천하로 대변될 수 있는 것은 입신양명하여 가문을 빛내고 국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는 남성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몸의 궁극적 완성 계기를 갖지 못하는 여성의 몸은 저급하고 결핍된,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남아, 악에 빠질 위험이 있는 존재로 평가된다. 이들은 제한적으로나마 어머니, 열녀, 효부의 역할로 온전한 몸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 - 김세서리아, 「양명학의 몸 이해 방식과 새로운 유교적 여성관 모색」, 『한국여성철학』 제2호, 한국여성철학회, 2002, 71-99면.

른 포상은 점점 더 늘어났으며 이를 둘러싼 획일적인 효행담론은 끊임 없이 반복, 확대 양산되었다고 하겠다.⁶⁾

효행이라고 일컬어지는 행위가 애초에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이타적 윤리이기 때문에 자신보다 부모를 생각하여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개인적 윤리 실천에 사회와 국가의 욕망이 개입하면서 후대로 갈수록 효행은 점점 하기 어려운 극한의 희생을 표방하는 것으로 전형화된다. 또한 효자/녀의 희생적 행위가 부각될수록 그 효의 대상인 부모의 존재는 은폐, 소거되어 그야말로 효행을 위한 전제로만 남게 된다. 그런데 과연 효행과 관련된 서사는 탄생부터 이데올로기적이었을까? 부모를 위한 이타적 윤리란 자녀의 자기희생이 핵심인가? 효행 서사에서 부모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초기 효행 서사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역사적 추이를 살펴 초기 자료를 선별하려면 문헌자료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유형의 폭과 주제의식이 다양한 구비효행설화⁷⁾와

6) 유학자들 사이에서도 斷指, 割股, 嘗糞 등의 극단적인 행위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아무것도 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식이 신체 일부를 손상해서라도 병을 고치는 것이 효도의 극치라는 주장도 있었고, 효도의 과잉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퇴계 이황이 전자를 완곡하게 옹호하는 입장에 있었고, 禹性傳은 이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성호 이익은 우성전과 같은 입장에 서서 그것이 효도의 폐단이라고 비난했다.(이익, 『성호사설』 제15권 인사문, 「割股」 이익과 마찬가지로 다산 정약용 또한 이러한 斷指·割股孝養 유행에 대해서 그것이 유학의 본뜻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여 맹렬하게 비판했다.(정약용, 『여유당전서』 제1집, 「효자론」)

7) 구비효행 설화 연구는 자료 개관에서부터 유형분류, 특정 유형의 의미 분석 등의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김대숙, 「구비효행설화의 거시적 조망」, 『구비문학연구』 제3집, 한국구비문학회, 1996, 177-201면.

강덕희, 「한국 구전효행설화의 연구-부모독병의 치료효행담으로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21집,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1983, 367-338면. ; 정인모, 「경남 지방 효행설화 연구」,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92, 1-77면. ; 김성봉, 「경북 지방의 효행설화의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1-71면. ; 소은정, 「효행설화의 유형과 의미: 영남지역 설화를 대상으로」, 경남대 교육

비교할 때, 문헌설화는 ‘효’의 가치를 일정한 방향으로 형상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효행서사의 초기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문헌 자료의 연구는 그 역사적 전개를 살펴 개괄적 특성을 살펴거나⁸⁾ 개별 작품의 상징성과 의미를 분석하는 방향⁹⁾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대부분 문헌 자료에서 드러나는 효의 성격과 의미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효행 설화 연구는 효행의 기록과 포상을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연계하여 설명하거나¹⁰⁾ 불교적 효 인식을 유교적 효와 비교하여 사회, 계층적 의미를 밝혀내기도 했는데,¹¹⁾ 무엇보다 효행의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1-61면. ; 이지향, 「전북지역의 효행설화 연구」, 우석대 석사학위 논문, 2004, 1-80면. ; 이병일, 「효행 설화 연구: 호남지역 효행설화를 중심으로」, 조선대 박사학위 논문, 2007, 1-124면.

오종근, 「한국구전 효행설화의 연구-부모득병의 치료효행담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연구』 12집,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1987, 207-225면.; 강진옥, 「효자 호랑이 설화에 나타나는 효 관념」, 『민속연구』 1집,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1991, 81-101면.; 최혜진, 「효행설화의 구조와 의미- 여성의식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6집, 숙명여자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6, 155-174면.; 권석환, 「효행설화 연구: 희생설화를 중심으로」,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1997, 1-66면.

- 8) 김대숙, 「문헌소재 효행설화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연구』 제6집, 한국구비문학회, 1998, 21-44면.
- 9) 강진옥, 「『삼국사기』 <효선편>설화 연구 I - 손순매아의 의미」, 『국어국문학』 93, 국어국문학회, 1985, 139-162면.; 심우장, 「효행설화와 희생제의의 전통」, 『실천민속학』 10, 실천민속학회, 2007, 175-203면.; 남동신, 「大城孝二世父母條에 보이는 효와 善」,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0,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9, 61-81면.; 김수태, 「『삼국유사』 ‘향득 사지’조로 본 신라인의 효행」,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0,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9, 83-121면.
- 10) 조범환, 「『삼국유사』 ‘貧女養母’條에 나타난 知恩의 효성」,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0,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9, 149-177면.; 전기웅, 「진성여왕대의 화랑 효종과 효녀 지은 설화」, 『한국민족문화』 25, 2005, 199-230면.; 정운룡, 「『삼국유사』 ‘손순매아’조로 본 신라인의 효심」,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0,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9, 123-148면.
- 11) 김복순, 「『삼국유사』 ‘진정사 효선쌍미’조와 일연과 김부식의 효 인식」,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0,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9, 37-60면.; 김영하, 「『三國遺事』 孝善篇의 이해」,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0,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9, 13-33면.

단면을 통해 효의 가치를 확인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¹²⁾ 분명한 시대적 배경이 존재하고 편찬자의 의식에 따라 기사의 선택이나 기술의 시각이 달라짐에도 어떤 식으로든 효행의 가치를 밝혀내는 것이 주된 연구 방향이어서, 주로 효행 주체가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또한 효행 설화는 일부 개별 작품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의미 분석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 주제의 윤리적 중량감과 자료의 성격 때문에 이야기 내부의 다양한 의미가 충분히 규명되기 어려웠다. 조선시대 교화서와 달리 초기 '역사서'에 실린 기사는 교화적 효과만을 위해 수집, 편찬된 것이 아니어서 효행설화라 하더라도 각각의 서사가 효행을 드러내는 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효에 대한 자세가 천편일률적이거나 무비판적이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삼국사기』 「列傳」과 『삼국유사』 「孝善」편 효행 설화를 고찰하여, 초기 효행 서사가 조선시대 교화서와는 달리 효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음을 밝히려 한다.

II. 『삼국사기』 「列傳」과 『삼국유사』 「孝善」篇에 나타난 효행의 양상

『삼국사기』는 효행으로 평가되는 인물을 따로 모으지 않고 「列傳」에서 여타 인물들과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삼국유사』는 「孝善」편을 따

12) 김희진은 『논어』, 『맹자』, 『효경』과 佛典의 효 관념을 살펴 『삼국사기』의 효가 충을 강조하는 반면, 『삼국유사』에서는 불교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김희진, 「한국 고대의 효 사상 연구: 『삼국사기』·『삼국유사』·『금석문』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9, 1-63면.) 이후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충을 통한 효의 구현에 좀 더 주목한 논의가 김병주에 의해 이어졌다.(김병주, 「『삼국사기』에 나타난 충효사상 연구- 「열전」을 중심으로」, 공주대 석사학위 논문, 2008, 1-55면.) 이해경 역시 효의 가치에 주목하여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사상과 고문화: 효문화의 생산과 『삼국유사』에서의 표현」, 『청소년과 효문화』 제18집, 한국청소년효문화학회, 2011, 77-97면.) 『삼국유사』는 체제상 「효선(孝善)」편이 따로 분류되어 있어서 인지 이를 효와 관련하여 논의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로 두고 있다. 「列傳」과 「孝善」편의 자료를 대상으로 그 효행의 양상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을 파악할 수 있다. 유전자의 선택에서도 생물학적 본성과 이타성 사이의 치열한 투쟁과 타협이 공존하는 것처럼 일견 단순해 보이는 효성의 행위도 효행의 대상인 부모, 효행의 주체인 자식, 그리고 효행의 평가자(목격·기록자)의 관점에 따라 서로 충돌하고 변화하는 지점이 생기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효행 주체와 갈등의 요인과 해결방식, 부모의 태도를 중심으로 두 역사서에 등장하는 효행 설화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삼국사기』 「列傳」

『삼국사기』 「列傳」에는 ‘向德’, ‘聖覺’, ‘孝女 知恩’, ‘薛氏女’ 4인의 효행 관련 인물이 등장한다.¹³⁾ 열전 체제상 인물의 이름이 표제로 나오는데, 至恩의 경우에만 ‘孝女’ 명칭이 더해졌다. 이들 4인의 사례가 세종 13년(1431) 간행된 『삼강행실도』 ‘孝子’ 편에도 ‘知恩賣身’, ‘薛氏分鏡’, ‘向德刲髀’, ‘聖覺養母’의 제목으로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용되어온 효자/녀에 대한 인식의 내용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¹⁴⁾

-
- 13)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충을 통한孝를 실현한 예가 盤屈, 官昌, 舉眞, 竹竹, 勿稽子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효가 충의 하부구조로 존재하던 시대적 성격을 말해준다.(이에 대해서는 김병주, 위의 글 참조) 본고에서는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일반 서민의 이야기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므로 이들 충효의 예는 다른 지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 14) 광해군 9년(1617)에 간행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는 설씨녀의 이야기가 손순의 이야기로 대체되었고, 지은에 관한 이야기의 제목을 바꾸어 신고 있다. ‘遜順得鍾’, ‘聖覺割股’, ‘向德刲髀’, ‘知恩孝養’ 순서로 편집되어 있는데, 설씨녀 대신 손순의 이야기가 들어간 것은 諫言보다 自己犧牲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게 된 후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번호	제목	주체	갈등요인	해결	부/모의 태도	결말	평가
1	向德	向德(孝順하여 칭송)	흥년(똥주름)과 전염병 어머니의 중기	넓적다리 살을 베어 먹임 중기를 빨아냄	.	모두 평안 왕의 포상 사람들의 칭송	.
2	聖覺	聖覺(절에 머물다 돌아와 어머니 봉양)	어머니의 노환 거친 음식을 넘기기 어려움	넓적다리 살을 베어 먹임	.	모친 사후 불공 왕의 포상	신체 훼손은 죄 평범한 이의 정성 칭찬할 만
3	孝女 知恩	孝女 知恩(32세 미혼, 性至孝, 홀어머니 봉양)	품팔이 구걸로 몸이 피곤함	뭍을 팔아 쌀을 받음 종이 되어 일하고 늦게 돌아와 봉양	죽는 게 낫다며 소리쳐 울	효종량과 낭도의 기부 왕의 포상 당 왕실에 표	효종량의 老成함
4	薛氏女	薛氏女(顔色端正, 志行脩整, 見者無不歎艷, 而不敢犯)	늙고 병든 아버지의 징병	嘉實의 대숙	가실과 혼인 요청 다른 사람과 혼인 강요	가실의 극적 귀환으로 혼인, 해로	.

효행의 주체는 대체로 애초에 효성스러운 성품을 타고난 것으로 나타난다. ‘효성스럽고 유순하다[孝順]_向德’거나 ‘지극히 효성스럽다[至孝]_知恩’ 같은 직접적인 표현을 하거나 ‘세간의 명예나 관직을 기꺼워하지 않았다[不樂世間名官]_聖覺’, ‘모습이 암전하고 마음가짐과 행동거지가 단정하여 보는 이마다 흠모했지만 감히 범접할 수 없었다[顔色端正, 志行脩整, 見者無不歎艷, 而不敢犯]_薛氏女’ 같이 인물의 비범한 성품을 유추할 수 있는 언술이 도입부에 제시되어 있다. 이는 인물 傳의 양식적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후 주체의 행위가 갖는 성격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하겠다.

이들 주인공의 부/모는 흥년과 가난, 질병과 징병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는데, 갈등의 원인은 표면적으로 자연적이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보인다. 또한 이들 효자/녀는 흥년과 전염병, 노환이나 가난 등의 문제를 온전히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向德과 聖覺은 다리 살을 자르고,

지은은 몸을 팔며, 설씨녀는 자신을 연모하던 가실을 아버지 대신 보낸다. 그런데 거듭되는 흉년으로 굶어죽는 사람이 생기고 결혼 적령기를 넘기도록 어머니 곁에 있어도 봉양할 길이 없어 스스로를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당시 지배층의 분열이나 정치적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¹⁵⁾ 가난한 하층민의 효행 사례에 왕실이 적극적으로 포상을 하고 이를 외교에까지 활용한 예에서도 이를 유추할 수 있다. 효자/녀는 당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존재들이라 하겠다.

효자/녀의 행위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반응과 칭찬, 그리고 포상은 4인의 효행설화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반면, 효자/녀의 행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나 효행의 결과는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向德은 애초에 굶주리고 병든 부모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려 정성을 다했지만 봉양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허벅지 살을 잘라내 먹이고 또 어머니 종기의 고름을 빨아냈다.¹⁶⁾ 그리하여 ‘모두가 평안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의 반응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결말에 이르러 왕의 표상이나 사람들의 칭송만 부각된다. 聖覺의 경우에도 노환으로 거친 음식을 소화하기 어려운 어머니에게 넓적다리 살을 베어 먹이지만 그 결과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바로 어머니의 사후에 그가 어머니를 위해 불공을 드렸다는 사실만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도 왕의 포상이 있지만 어머니의 반응이나 효행의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¹⁷⁾ 병든 부모를 위한

15) 지배층이 효행에 대한 포상을 정치적 위기 상황 타개책으로 삼았다는 논의는 전기웅, 위의 글 참조.

16) 向德, 態川州板積鄉人也, 父名善, 字潘吉, 天資溫良, 鄉里推其行, 母則失其名, 向德亦以孝順, 爲時所稱, 天寶十四年乙未, 年荒民饑, 加之以疫癘, 父母飢且病, 母又發癰, 皆濱於死, 向德, 日夜不解衣, 盡誠安慰, 而無以爲養, 乃割髀肉以食之, 又吮母癰, 皆致之平安, 鄉司報之州, 州報於王, 王下教, 賜租三百斛宅一區口分田若干, 命有司立石紀事, 以標之, 至今, 人號其地云孝家里 - 『삼국사기』 권 제48 열전 제8 向德

17) 기사 말미의 논찬에 신체 훼손에 대한 김부식의 입장이 진술되어 있는데, 극단적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하층민의 윤리적 태도에 대해 언급함으

신체 훼손의 효행 서사에서 부모는 병든 몸을 가진 대상으로, 효자의 효행을 유발하는 기제로서만 존재할 뿐 자식과 관계 맺거나 그 행위에 반응하지 못하고 他者化된다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지은과 설씨녀의 예에서는 효녀의 행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서사 표면에 드러난다. 知恩은 ‘孝女’라고 지칭되지만, 그녀의 효행은 어머니의 통곡으로 귀결된다.¹⁸⁾ 지은은 올바르게 못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일반적으로 효행이 부모의 회복이라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과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지은이 자신의 賣身 행위를 처절하게 반성하고 진정한 효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반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효행에 관한 열린 서사로 볼 수 있겠다. 설씨녀 아버지의 반응은 좀 더 적극적이다. 자신의 역을 대신하려는 가실을 만나 적극적으로 딸과의 혼인을 추진하고, 후에 가실이 돌아오자 아버지도 기뻐한다. 그렇지만 설씨녀의 효행은 아버지에게 순응하는 태도로서가 아니라 가실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립하고 諫言함으로써 의미를 갖게 된다.

자식의 효행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부분적으로나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이후 『고려사』 「列傳」이나 조선시대 교훈서에서는 거의 없다. 효성스러운 행위는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하고 포상해야 한다

로써 효의 사회적 기능을 중시했다.(論曰, 宋祁唐書云, 善乎, 韓愈之論也, 曰, 父母疾, 烹藥餌, 以是爲孝, 未聞毀支體者也, 苟不傷義, 則聖賢先衆而爲之, 是不幸因而且死, 則毀傷滅絕之罪, 有歸矣, 安可旌其門, 以表異之, 雖然, 委巷之陋, 非有學術禮義之資, 能忘身以及其親, 出於誠心, 亦足稱者, 故列焉, 則若向德者, 亦可書者乎. - 『삼국사기』 권 제48 열전 제8 聖覺) 이혜순(「김부식의 여성관과 유교주의-『삼국사기』 여성 열전의 분석적 고찰」, 『고전문학연구』 11, 한국고전문학회, 1996, 3-24면.)은 김부식이 효의 의미를 좀더 확대되고 개방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 18) ‘孝女 知恩’ 전체 기사의 절반은 孝宗郎에 관한 것이고 말미의 평가 역시 효종왕의 老成함을 부각하고 있다. 이 기사는 지은의 효성에 공감하고 그 공감의 영역을 확장한 효종왕의 인물됨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효종왕은 이 일로 인하여 憲康王의 사위가 되는 포상을 받았다.

는 것이 교훈서의 논리라면, 『삼국사기』 「列傳」에서는 효행의 가치를 미리 단정하고 평가하지 않으며, 효는 어떤 면에서는 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 중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 『삼국유사』 「孝善」편

『삼국유사』 「孝善」편에는 ‘眞定’, ‘大城’, ‘向得’, ‘孫順’, ‘貧女’ 5인의 효행 관련 인물이 등장한다. 向得을 제외한 4인의 기사에서 결말은 주인공의 出家나 佛寺 喜捨로 나타나, 이들의 효행이 불교적 의미의 善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가운데 후대 교화서에 보이는 인물은 向得과 孫順, 貧女 3인이다.

번호	제목	주체	갈등요인	해결	부/모의 태도	결말	평가
1	眞定師 孝善雙美	眞定(가난한 총각 병사, 품팔이로 홀어머니 봉양)	출가 의향	노모 봉양 후 출가 결심	아들의 결심을 꾸짖고 집안의 음식을 남김없이 싸 보냄	출가 어머니의 극락왕생	·
2	大城孝 二世父母	大城(내세 위해 보시/ 환생하여 불사)	대성의 죽음	전생·현생 부모 위해 사찰 건립	전재산 보시 동의 전생 모친 봉양	한 몸으로 전·현생 부모에 효도	讚
3	向得舍知 割股供親	向得	흉년으로 아버지 굶주림	넓적다리를 베어 봉양	·	왕의 포상	·
4	孫順埋兒	孫順(아내와 품팔이로 노모 봉양)	아이가 음식을 빼앗아 노모가 굶주림	아이를 묻으려 산으로 감 석중을 얻어 돌아옴	·	왕의 포상 사찰 건립 중 사라지고 절만 남음	·
5	貧女養母	貧女(20세, 결식으로 눈먼 어머니 봉양)	흉년으로 봉양 어려움	남의 집 품팔이로 새벽부터 저물도록 일함	소리쳐 읊	효종량과 낭도의 기부 왕의 포상 사찰 건립	·

『삼국사기』 「列傳」과 달리 『삼국유사』 「孝善」편에서는 표제를 통해 주제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머니 생전의 봉양과 출가를 통해 사후의 추선을 이룬 진정(眞定師孝善雙美), 내세를 위해 보시하고 환생하여 전생과 현생의 부모를 위해 사찰을 건립한 대성(大城孝二世父母), 다리 살을 잘라 아버지를 봉양한 향득(向得舍知割股供親), 아들을 땅에 묻어 어머니를 봉양하려 한 손순(孫順埋兒), 가난하여 남의 집 종살이를 하여 어머니를 봉양한 여인(貧女養母) 등 일연은 효자/녀의 행위에서 어떤 점을 평가해야 하는지 뚜렷하게 보여준다. 일연은 효행의 문제를 종교적 귀의, 또는 깨달음을 통한 삶의 완성과 동일한 범주 내에서 다루고 있다.

주인공의 부/모가 겪는 문제는 『삼국사기』 「列傳」에서처럼 가난으로 인한 굶주림도 있지만, 진정과 대성의 경우는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처지와 자신의 지향이 달라서 생긴다. 현세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는 주인공에게 종교적 거듭남이 필요한데, 이들에게는 봉양해야 할 어머니의 존재가 있다. 향득과 손순, 貧女에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굶주림이나 질병 같은 외부적인 것이었다면 진정과 대성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효자 자신의 내부에 있는 깨달음과 초월 같은 자기 실현의 문제였다고 하겠다.

法師 眞定은 … 일찍이 兵役에 있을 때에 義湘法師가 太伯山에서 설법하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말을 듣고 우러르는 마음이 있어 그 어머니에게 “효를 다한 후에는 의상법사에게 투신하여 머리를 깎고 불도를 배우겠습니다.”라고 하였다.¹⁹⁾

大城이 듣고 뛰어 들어와 그 어머니에게 “내가 문에서 중이 축원하는 말을 들으니 하늘을 보시하면 만 배를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1)전생에 닦은 흠이 없어 이리 곤궁하니 지금 보시하지 않으면 내세에는 더욱 고생스러운 것입니

19) 法師眞定 … 嘗在行伍間, 聞人說義湘法師在太伯山說法利人, 卽有嚮慕之志, 告於母曰: 畢孝之後, 當投於湘法師, 落髮學道矣. - 『삼국유사』 권 제5 「孝善」 제9 眞定師孝善雙美

다. 우리가 얻은 밭을 법회에 시주하여 훗날 보답을 얻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매, 어머니가 좋다하여 밭을 漸開에게 보시하였다. 얼마 후 大城이 죽었다. … 장성하여 사냥을 좋아했는데, 하루는 吐含山에 올라가서 꿈을 잡고 산 아래 마을에 유숙하였다. 꿈에 꿈이 귀신으로 변하여 “네가 어찌서 나를 죽였느냐? 내 환생하여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라고 따졌다. (2)大城이 두려워하며 용서를 청하니, 귀신은 “네가 나를 위하여 절을 세워 주겠느냐?”라고 했다. 대성이 맹세하며 허락했는데, 꿈을 깨니 땀이 흘러 자리를 적셨다. 이후로 들판에서 사냥을 금하고 꿈을 위하여 그 자리에 長壽寺를 세웠다. (3)그로 인해 마을에 감동한 바가 있어 이루고자 하는 바람이 더하였다.²⁰⁾

진정은 일찍부터 사람을 이롭게 만드는 도리를 찾고자 했다. 진정의 목표와 바람은 애초에 정해진 것이었는데, 어머니에 대한 효의 문제가 이 목표 실현을 유예하게 하는 갈등요인이 된다. 이 서사에서 효는 뜻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극복해야 할 어떤 단계이다. 대성의 서사는 대성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어떻게 거치고 있는지 단계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가난한 현세를 벗어나 보답을 받을 생각으로 시주하고(1), 새롭게 태어나서는 자신이 사냥한 꿈이 귀신으로 나타난 것이 두려워 절을 세우게 된다(2).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 결국 마음속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 悲願을 세우게 된다(3). 전생과 현생의 부모를 위해 사찰을 건립하는 (효행으로 평가되는)행위는 이 모든 깨달음의 과정에서 발현된 결과라 하겠다. 손순이나 貧女의 이야기도 결국 사찰의 건립이나 깨달음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각을 반영한다.²¹⁾

20) 大城聞之, 跳跟而入, 謂其母曰: 予聽門僧誦偈, 云施一得萬倍. 念我定無宿善, 今茲困匱矣. 今又不施, 來世益艱, 施我傭田於法會, 以圖後報何如. … 既壯, 好遊獵. 一日登吐含山捕一熊, 宿山下村, 夢熊變爲鬼訟曰: 汝何殺我, 我還啖汝. 城怖懔請容赦. 鬼曰: 能爲我創佛寺乎? 城誓之曰喏. 既覺, 汗流被蓐. 自後禁原野, 爲熊創長壽寺於其捕地. 因而情有所感, 悲願增篤. 『삼국유사』 권 제5 「孝善」 제9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

21) 후대 교화서에는 佛道の 실현 문제가 전면에 배치되는 진정, 대성의 이야기는 배제되며, 손순이나 貧女의 서사에서도 사찰의 건립과 관련된 내용은 빠

『삼국사기』 「列傳」 효행설화에서 주변사람들의 반응과 포상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면 『삼국유사』 「孝善」편의 효행설화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주인공 또는 주인공을 통해 일연이 지향하는 서사의 목표가 道理의 탐색이라는 내부적 문제이므로 주위의 칭찬이나 왕의 포상이 갖는 비중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향득과 손순, 貧女의 서사에서 포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무게중심이 손순과 貧女의 경우 鍾의 행방이나 절터, 불사 회사의 문제로 옮겨 가 있다. 또한 진정과 대성에게는 주변의 반응이나 포상의 문제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 출가나 불사를 통한 孝善의 완성이 깨달음이라는 개인적 삶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부모의 태도 역시 자식의 자아실현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삼국사기』와는 또 다른 효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삼국유사』 「孝善」편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하는 늙고 병약한 존재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삶에 관여하고 자식의 자아실현 문제에 개입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다리 살을 베어 먹인 향득이나 아이를 묻어 노모를 살리려 한 손순의 부/모에게서는 어떠한 반응도 살피기 어려운 반면, 貧女의 어머니는 통곡을 하고, 대성과 진정의 어머니는 자식의 뜻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이후 『고려사』 「列傳」 ‘孝友’ 편이나 조선시대 교화서에서는 좀처럼 살피기 어렵다. 부/모는 단순히 효자/녀가 행하는 행위의 대상, 즉 병약하고 위험에 처해 있어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만 등장하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나 행위가 애초에 드러나지 않는다. 부/모는 효자의 행위를 추동하는 촉매로서만 존재하므로 그들의 반응이 의미화 될 여지가 마련되지 않는 것이다. 부모의 반응이나 태도를 살필 수 있다는 것이 초기 효행 설화의 특징적인 점이라면, 이들의 태도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며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지게 된다.

Ⅲ. 초기 효행서사의 성격

1. 은폐된 부/모의 존재와 자기희생의 전형성

효행은 자신을 낳아주고 보살펴 길러준 부모에게 행하는 도리이다. 부모는 자식이 ‘효’라는 가치를 수행하는 근거이자 이유인데, 신체 훼손이나 자식 살해 등 극단적 자기희생이 강조되는 효행 서사에서는 부모가 느끼게 되는 인간적 감정이나 반응이 소거되어 있다. 그동안 효행설화의 연구에서 부모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부모의 존재가 효행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만 기능할 뿐 자식과 소통하는 관계적 존재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天寶(唐玄宗) 14년 乙未(新羅 景德王 14년, 서기 755)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렸는데, 전염병까지 겹쳤다. 부모가 주린 데다 병까지 들었는데, 어머니는 또 종기가 나서 모두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向德은 밤낮으로 옷을 벗지도 않고 정성을 다하여 위안하였으나 봉양할 수 없었다. 이에 넓적다리 살을 베어 먹이고 또 어머니의 종기를 빨아내어 모두 평안하게 되었다. 鄉司에서는 州에 보고하고, 州에서는 왕에게 아뢰니, 왕이 하교하여 벼 300가마, 집 한 채와 口分田 약간을 내리고, 해당 관청에 명하여 비석을 세우고 사실을 적어 표시했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 곳을 ‘孝家’라고 이른다.²²⁾

(2) 能川州 向得 舍知는 흉년에 그 아버지가 거의 굶어 죽게 되었는데, 向得이 그 넓적다리를 베어 봉양하였다. 고을사람이 자세히 사실을 아뢰니 景德王이 상으로 租 500석을 하사했다.²³⁾

22) 天寶十四年乙未, 年荒民饑, 加之以疫癘. 父母飢且病, 母又發靡, 皆濱於死. 向德, 日夜不解衣, 盡誠安慰, 而無以爲養. 乃割腓肉以食之, 又吮母靡, 皆致之平安. 鄉司報之州, 州報於王, 王下教, 賜租三百斛宅一區口分田若干, 命有司立石紀事, 以標之, 至今, 人號其地云孝家里. - 『삼국사기』 권 제48 「列傳」 제8 向德

23) 能(熊)川州有向得舍知者, 年凶, 其父幾於餓死, 向得割股以給養. 州人具事奏聞,

(3) 후에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늙고 병들어 蔬食하기도 어려우므로 다리의 살을 베어 먹였으며, 死後에는 지성껏 佛供을 드려 복을 빌었다. 大臣으로 있던 角干 金敬信과 伊滄 周元 등이 국왕에게 아뢰어, 熊川州 向德의 故事에 의거하여 가까운 고을의 租 300석을 상으로 내렸다.²⁴⁾

向德(1), 向得(2)과 聖覺(3)의 예에서 이들의 부/모는 굶주리고 병들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상태로 등장한다. 이들은 자식이 정성을 다해 봉양해도 어쩔 수 없을 만큼 극단적 상황에 놓여 있다. 여기서 효자는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자식의 신체 훼손 과정에서 부/모가 느끼게 되는 심적 갈등이나 고통의 감각은 효성보다 더 본능적일 수 있을 텐데도 부/모의 감정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²⁵⁾ 또한 자식이 내어준 살덩이를 취한 부/모의 상태가 호전되었는지 어땠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되지 않는다. (1)의 예에서만 부분적으로 ‘모두 평안하게 되었다’고 하여 경과를 암시하고 있을 뿐이다. (2)에서는 向得의 행위에만 초점이 놓여 있을 뿐 이후 그 아버지의 상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3)의 경우에도 聖覺이 살을 베어 먹인 시점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의 언급 사이에 성각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길은 없다. 다만 이렇듯 지극한 효행이 발생했다는 ‘사실’만 부각될 뿐이다. 이후 이어지는 언술은 부/모의 반응이나 회복 결과가 아닌 왕의 포상이다.

景德王賞賜租五百碩. - 『삼국유사』 권 제5 「孝善」 제9 向得舍知割股供親 景德王代

- 24) 後歸家養母, 以老病難於蔬食, 割股肉以食之, 及死, 至誠爲佛事資薦. 大臣角干敬信伊滄周元等, 聞之國王以熊川州向德故事, 賞近縣租三百石. - 『삼국사기』 권 제48 「列傳」 제8 聖覺
- 25) 자식의 신체훼손 행위 자체가 부모는 모르게 진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효자의 행적이 주위의 칭송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널리 알려졌음을 감안한다면 나중에라도 이에 대해 인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지만 이후의 부모 반응에 대한 언급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4) 老母는 이름을 運鳥라 하였다. 順에게 어린아이가 있어 매양 노모의 음식을 빼앗아 먹으니 민망히 여기어 그 처에게 “아이는 다시 얻을 수 있으나 어머니는 다시 얻기 어렵소. 아이가 어머니의 음식을 빼앗아 먹어 어머니의 굶주림이 심하니 차라리 이 아이를 물어버리고 어머니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 좋겠소.”라 하고 아이를 업고 醉山[산은 牟梁 서북쪽에 있음] 북쪽 교외로 가서 땅을 파다가, 홀연 기이한 石鍾을 얻었다. 부부가 놀라고 이상히 여겨 잠깐 나무 위에 걸고 두드려 보았더니 그 소리가 은은하여 사랑할 만했다. 처가 “기이한 물건을 얻을 것은 이 아이의 복 같으니 묻지 맙시다.”라 하였다. 남편 또한 그렇게 생각하여 아이를 업고 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종을 들보에 달고 두드리니 그 소리가 대궐에 들렸다. 興德王이 듣고 좌우에 ‘서쪽 교외에서 이상한 종소리가 나는데 맑고 깊기가 짝이 없으니 속히 조사하라’ 하였다. 왕의 使者가 그 집에 가서 조사하고 사실을 자세히 아뢰었다. 왕이 “옛날 郭巨가 아들을 파묻을 때 하늘이 금 술을 내렸다. 지금 孫順이 아이를 묻으매 땅에서 石鍾이 솟아났으니 이 두 효도는 천지에 같은 귀감이라.”하고 집 한 채를 주고 해마다 매벼 50석을 주어 지극한 효성을 숭상케 하였다. 순은 옛집을 회사하여 절을 삼고 ‘弘孝寺’라고 하여 석종을 안치했다. 眞聖王代에 百濟 도적이 그 마을에 쳐들어와, 종은 없어지고 절만 남았다. 그 종을 얻은 땅을 完乎坪이라고 하나 지금은 와전되어 枝良坪이라고 한다.²⁶⁾

孫順(4)의 예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손순의 어머니는 ‘運鳥’라는 이름만 제시될 뿐 아들과 며느리가 손자를 묻으려는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그리고 신이한 돌종을 찾아 손자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 어떠한 심적 고통을 겪었는지 전

26) 孃名運鳥. 順有小兒, 每奪孃食, 順難之, 謂其妻曰, 兒可得, 母難再求, 而奪其食, 母飢何甚. 且埋此兒, 以圖母腹之盈. 乃負兒歸醉山(山在牟梁西北)北郊, 掘地忽得石鍾, 甚奇. 夫婦驚怪, 乍懸林木上, 試擊之, 春容可愛. 妻曰, 得異物, 殆兒之福, 不可埋也. 夫亦以爲然, 乃負兒與鐘而還家, 懸鐘於梁扣之, 聲聞于闕. 興德王聞之, 謂左右曰: 西郊有異鐘聲, 清遠下類, 速檢之. 王人來檢其家, 具事奏王. 王曰: 昔郭巨瘞子, 天賜金釜, 今孫順埋兒, 地湧石鍾. 前孝後孝, 覆載同鑑. 乃賜屋一區, 歲給粳五十碩, 以尙純孝焉. 順捨舊居爲寺, 號弘孝寺, 安置石鍾. 眞聖王代, 百濟橫賊入其里, 鐘亡寺存. 其得鐘之地, 名完乎坪, 今訛云枝良坪. - 『삼국유사』 권 제5 「孝善」 제9 孫順埋兒 興德王代

혀 드러나 있지 않다. 효를 위해 자식을 희생하는 이 처절한 현실에서 정작 그 효의 대상인 손순의 어머니 ‘운오’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효자인 손순이 자신의 의도를 어머니에게 숨겼을 수도 있지만 손순 가족이 겪은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의 근원이 되는 어머니의 반응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서사는 감내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부/모를 일부러 격리한다.²⁷⁾ 이렇게 어머니의 존재가 손순의 효행과 상호 연관되지 못한 채, 효자의 행위는 왕의 포상으로 평가받는다.

자식이 스스로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그 자녀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처참한 현실의 이면에는 하층민이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도록 내몬 당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일상적 삶이 가능하지 않은 극한 상황에서 부/모는 자식과 상호 관계 맺으며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로 기능하지 못하고, 자식은 신체훼손이나 자녀살해 같은 일방적인 극단 행위를 통해 효자/녀가 된다. 혹독한 현실에서 취한 극단적 행위는 결국 사회 유지를 위한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포상되는데, 일련의 과정에서 부/모의 목소리는 소거되고 존재는 배제되어 극단적 효행의 서사를 비현실적으로 보이게 하는 데 일조한다.

2. 통곡의 울음소리와 소통의 가능성

조선시대 교화에서도 무한 양산되는 신체 훼손의 극단적, 전형적 효행 서사가 효자/녀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孝女 知恩>과 <貧女 養母>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뿐 아니라 효행 대상인 어머니의 목소리 또한 분명하게 전달된다.

27) 이정원은 부모를 위해 신체를 훼손하는 자식의 모습이 부모에게는 불편한 진실이므로 아버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삼강행실도』에서는 가림막이 존재한다고 분석하면서 이를 ‘이기적 무지’라고 명명했다. 이정원, 「판소리 문학에서 삼강행실도의 수용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407-442면.

그리고 지은〔貧女〕이 자신의 몸을 팔아 봉양한 행위는 그 자체로 효에 부합하지 않음이 그 어머니의 반응을 통해 드러난다. 효자/녀의 행위는 그 자체로 완벽한 효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은〔貧女〕의 서사는 그것이 부모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의미를 지녀야 한다는 진실을 환기한다.

효녀 지은은 韓歧部 백성 連權의 딸이다. 그녀는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그리하여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어머니를 모셨다. 그녀는 나이 32세가 되어도 시집을 가지 않고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하여 곁을 떠나지 않았다. 봉양할 거리가 없으면 어떤 때는 품팔이도 하고 어떤 때는 구걸도 하여 밥을 구해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그러한 생활이 오래 되자,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여 부잣집에 가서 자청하여 몸을 팔아 종이 되고 쌀 10여 석을 얻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그 집에서 일을 해주고 날이 저물면 밥을 지어 가지고 돌아와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이렇게 3, 4일 지나자 그의 어머니가 딸에게 이르기를 “전에는 밥이 나빠도 맛이 좋았는데 지금은 밥이 좋은데도 맛이 옛날만 못하고, 마치 살 속을 칼로 찌르는 듯하니 이것이 웬일이냐?”라고 하였다. 딸이 사실대로 고하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 때문에 너를 종이 되게 하였으니 차라리 빨리 죽는 편이 낫겠다.”고 하면서 소리를 내어 크게 우니 딸도 따라 울어서 그 슬픔이 길 가는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이 때 효종(왕)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 부모에게 청하여 자기 집 곡식 100석과 옷가지를 실어다 주었다. 그리고 또한 그녀가 몸을 판 사람에게 몸값을 보상해 주고 양민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낭도 몇 천 명이 각각 곡식 1섬씩을 주었다. 대왕이 이를 듣고 또한 벼 500석과 집 한 채를 하사하고, 부역을 면제하여 주었으며, 곡식이 많아서 도둑이 들까 염려하여 관계자에게 명하여 군사를 보내 교대로 지켜주게 하였다. 그리고 그 마을을 ‘孝養坊’이라 하고 표문을 올려 당 나라 왕실에도 그녀의 아름다운 행실을 알렸다.

효종(왕)은 당시 제3 재상인 舒發翰 仁慶의 아들로서 아명은 化達이었다. 왕이 생각하기를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老成한 면이 있다고 여겨 즉시 형 헌강왕의 딸을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²⁸⁾

28) 孝女知恩, 韓歧部百姓連權女子也. 性至孝, 少喪父, 獨養其母, 年三十二, 猶不從人, 定省不離左右, 而無以爲養, 或傭作或行乞, 得食以飼之, 日久不勝困憊,

지은은 타고난 성품부터 효성스러울 뿐 아니라 혼인을 하지도 못한 채 곁에서 품팔이와 구걸을 하여 홀어머니를 보살폈으며 결국 자신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할 정도의 효녀이다. 그러나 지은의 효행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니다. 지은의 어머니는 가장 가까이에게 딸을 지켜보면서 본능적으로 딸이 처한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딸이 자신 때문에 남의 종이 된 것을 알고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며 통곡한다. 어머니의 울음 섞인 발화로 인해 지은은 자신의 효행이 어머니를 향한 것이 아니었으며, 여태까지의 행위가 오히려 불효였음을 깨닫고 함께 울부짖는다. 자신의 행위가 진정한 효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와 공명하는 순간, 이 광경은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된다. 효자/녀의 희생적 효행이 그 자체만으로 평가받는 자기희생의 전형적 서사와는 달리, 지은의 효행은 자신의 시행착오를 노출하고 자식의 희생에 대해 어머니가 그 고통의 감각을 표출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진정한 효는 그것이 비록 갈등을 내포한다 할지라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반응할 때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지은의 설화는 시사하고 있다.

지은이 자신의 효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뉘우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물음과 통곡 때문이었다. 이 효행의 상호 소통 구조는 모녀의 울음 소리를 통해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었는데, 효종량이 바로 그 소통의 확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지은 모녀의 모습에 감동한 효종량은 지은의 신분을 회복해주고 재물을 기부하는데, 그의 행위는 수많

就富家請賣身爲婢，得米十餘石，窮日行役於其家，暮則作食歸養之，如是三四日，其母謂女子曰：向，食麤而甘，今則食雖好，味不如昔，而肝心若以刀刃刺之者，是何意耶？女子以實告之，母曰：以我故使爾爲婢，不如死之速也。乃放聲大哭，女子亦哭，哀感行路。時孝宗郎出遊見之，歸請父母，輸家粟百石及衣物予之，又償買主以從良，郎徒幾千人，各出粟一石爲贍。大王聞之，亦賜租五百石家一區，復除征役，以粟多恐有剽竊者，命所司差兵番守，標榜其里曰孝養坊，仍奉表，歸美於唐室。孝宗，時第三宰相舒發翰仁慶子，少名化達，王謂雖當幼齒便見老成，卽以其兄憲康王之女妻之。 - 『삼국사기』 권 제48 「列傳」 제8 孝女 知恩

은 낭도들에게로 확산되고, 결국 왕의 포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는 효종왕이 지은의 효성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그에 소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공감과 소통의 구조는 당대 사회가 결여하고 있던 것이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를 포상하고 외교에까지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⁹⁾ 결국 지은의 賣身 행위는 그 자체로 실패한 효행이다. 그렇지만 지은의 설화는 어머니의 목소리 개입으로 지은이 어머니와 소통하면서 비로소 효행서사로 완성된다 하겠다.

3. 드러나는 부/모의 목소리와 효자/녀의 자아실현

부/모의 태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설화는 <眞定師孝善雙美>와 <薛氏女>이다. 두 설화에서 부/모의 목소리가 전면에서 부각되고 이들의 태도와 행위가 효자/녀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들 부/모의 역할은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부/모의 존재가 전면에서 배치됨으로써 효자/녀가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1) 法師 眞定은 신라인이었다. 출가 전에 군대에 있었는데, 집이 가난하여 장가를 들지 못하고 부역하는 여가에 품을 팔아 곡식을 얻어 그 홀어머니를 봉양했다. 집안에 재산이라고는 오직 다리 부러진 술 한 개가 있을 뿐이었다. 하루는 중이 문간에 와서 절을 지을 쇠붙이를 시주하라고 하니 그 어머니가 술을 주었다. 얼마 후 定이 밖으로부터 돌아오니 어머니가 이유를 말하고 아들의 뜻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았다. 定이 기쁜 얼굴로 “佛事に 시주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비록 술이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라 하고 질그릇을 술 삼아 음식을 익혀 봉양했다. 일찍이 병역에 있을 때에 남들이 義湘法師가 太伯山에서 설법하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말을 듣고 흠모하는 마음이 있어 그 어머니에게 “孝를 다한 후에는 의상법사에게 가 머리를 깎고 佛道를 배우겠습니다.”라고 했다. 어머니는 “佛法은 만나기 어렵고 인생은 너무도 빠른데, 효를 다한

29) 진성왕대 정치 사회적 문제와 화랑 세력에 관한 것은 전기웅(위의 글) 참조.

뒤라고 하면 또한 늦지 않겠느냐? 내 생전에 네가 가서 聞道했다고 듣는 것만 하겠느냐? 너는 주저치 말고 속히 가거라.”하니, 定이 “어머님 만년에 오직 내가 옆에 있을 뿐인데 어찌 차마 어머님을 버리고 출가할 수 있겠습니까?”라 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출가를 못한다면 나를 곧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니 비록 살아서 三牢七鼎으로 봉양하더라도 어찌 孝라고 하라? 나는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남의 문간에서 얻어서라도 타고난 수명은 누릴 수 있을 것이니 나에게 효도하고자 하거든 그런 말을 말아라.”라 하니 定이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였다. 그 어머니가 곧바로 일어나서 자루를 모두 털어보니 쌀이 7되였다. 그날 그것으로 다 밥을 짓고 “밥을 지어 먹으면서 가자면 더딜 터이니, 내 눈 앞에서 그 하나를 먹고 나머지 여섯 개는 싸가지고 어서 가거라.”라고 했다. 定이 울음을 머금고 사양하며 “어머님을 버리고 출가하는 것도 자식이 차마 하지 못할 일인데 더구나 漿과 여러 날의 양식을 모두 싸가지고 간다면 천지가 저를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하고 세 번 사양하며 세 번 권하였다. 定이 그 뜻을 어기기 어려워 길을 떠나 밤낮으로 가서 3일 만에 太伯山에 이르러 義湘에게 투신하여 머리를 깎고 제자가 되어 이름을 眞定이라고 하였다. …… 의상이 門徒를 이끌고 小伯山 錐洞에 가서 초가를 짓고 무리 3000을 모아 약 90일간 華嚴大典을 講하였다. …… 講이 끝난 후 그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나는 이미 하늘에 태어났다”고 하였다.³⁰⁾

30) 法師眞定, 羅人也. 白衣時, 隸名卒伍, 而家貧不娶. 部役之餘, 傭作受粟, 以養孀母, 家中計產, 唯折脚一鎰而已. 一日有僧到門, 求化營寺鐵物, 母以鎰施之. 旣而定從外歸, 母告之故, 且虞子意何如爾. 定喜現於色曰: 施於佛事, 何幸如之. 雖無鎰又何患? 乃以瓦盆爲釜, 熟食而養之. 嘗在行伍間, 聞人說義湘法師在太伯山說法利人, 卽有嚮慕之志, 告於母曰: 畢孝之後, 當投於湘法師, 落髮學道矣. 母曰: 佛法難遇, 人生大速. 乃曰畢孝, 不亦晚乎? 曷若趁予不死, 以聞道聞. 慎勿因循, 速斯可矣. 定曰: 萱堂晚景, 唯我在側, 棄而出家, 豈敢忍乎? 母曰: 噫爲我防出家, 令我便墮泥黎也. 雖生養以三牢七鼎, 豈可爲孝? 予其衣食於人之門, 亦可守其天年. 必欲孝我, 莫作爾言. 定沈思久之. 母卽起罄倒囊儲, 有米七升, 卽日畢炊, 且曰: 恐汝因熟食經而營行慢也. 宜在子目下, 噉其一, 囊其六, 速行速行. 定飲泣固辭曰: 弃母出家, 其亦人子所難忍也. 況其杯漿數日之資, 盡裹而行, 天地其謂我何? 三辭三勸之. 定重違其志, 進途宵征, 三日達于太伯山, 投湘公剃染爲弟子, 名曰眞定. …… 湘率門徒歸于小伯山之錐洞, 結草爲廬, 會徒三千, 約九十日, 講華嚴大典. …… 講畢, 其母現於夢曰: 我已生天矣. - 『삼국유사』 권 제5 「孝善」 제9 眞定師孝善雙美

진정의 어머니는 아들이 품고 있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시험해보고 ‘孝’가 무엇인지 분명한 어조로 직접 언급한다. 그녀는 아들 진정이 의상의 佛法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가난한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술을 시주하여 아들의 마음을 확인한다. 또한 진정이 자신 때문에 배우의 시기를 늦추려는 것을 알고는 빨리 불법을 배우라고 종용한다. 아들은 효를 다한 후 불법을 배우겠다고 했으나 어머니는 아들의 깨달음이 더 기쁜 것이라 한다. 하지만 효가 엄연히 부모를 위한 자기희생이라고 믿는 진정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이에 진정의 어머니는 아들을 꾸짖으며 자신을 위한 효는 바로 진정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설파한다. 아들 진정의 바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아는 어머니는 아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효라고 강경하게 말한다. 그럼에도 진정은 여전히 머뭇거리는데, 어머니는 아들의 미련을 없애려 집안의 양식을 모조리 싸서 주며 완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진정의 서사는 그 어머니와의 의견 대립으로 점철되어 있다. 자식의 입장에서 효는 부모를 끝까지 봉양하는 것이지만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다. 결국 진정이 출가하여 의상의 설법을 듣고 禪定에 이르며, 그 어머니가 천상으로 가면서 부모와 자식 모두 자기완성을 이루게 된다. 진정의 어머니는 자식의 꿈에 적극적으로 동조함으로써 해서 자식과 대립하지만 결국 자식을 성장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적극적 조력자이자 자식의 효행을 완성하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하다. 반면 설씨의 아버지는 정반대의 위치에서 설씨의 효행을 매개한다.

(2) 아버지가 만나보고 “그대가 이 노인을 대신하여 가려한다 하니 기쁘고도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다. 무엇으로 갚을까 생각하는데, 만일 그대가 나의 어린 딸을 어리석고 누추하다 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아내로 삼아 그대를 받게 하고 싶다”고 하니, 嘉實이 再拜하며 “감히 바라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소원입니다.”라고 하였다. …… 아버지가 딸에게 “처음에 3년으로 기약을 하였는데, 지금(기한)이 넘었으니 다른 집으로 시집가야 하겠다.”라 했다. 薛氏가 “전일에 아버지를 편안케 하기 위하여 억지로 嘉實과 약속을 하였고, 가실도 그 약

속을 믿었기 때문에 중군하여 여러 해 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敵境에 바짝 가 있어 손에 병기를 놓지 않고, 범의 입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물릴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信義를 저버리고 식언하는 것이 어찌 人情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은 감히 끝까지 따르지 못하겠사오니 다시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늙고 또 정신이 흐릿하여, 딸이 장성했는데 배필이 없다고 억지로 시집을 보내려 하고 몰래 마을 사람과 혼인을 약속하였다. 이미 날을 정하여 그 사람을 맞아들이니, 설씨는 굳게 거절하고 몰래 도망하려고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외양간에 가서 가실이 두고 간 말을 보고 크게 한숨 쉬고 눈물을 흘렸다. 이때에 가실이 교대되어 왔는데 빼만 남아 말라빠지고 옷이 남루하여 집사람들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라고 하였다. 가실이 바로 앞에다 쪼개진 거울을 던지니, 설씨가 받고 소리 내 울었으며, 아버지와 집안사람들도 모두 기뻐하였다. 마침내 다른 날을 정해 서로 만나 일생을 해로하였다.³¹⁾

설씨의 아버지는 즉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물이다. 딸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고 자기 대신 역을 살려 가겠다는 가실에게 딸과의 혼인을 제의하고 가실의 귀환이 늦어지자 다른 사람에게 시집갈 것을 요구한다. 또한 늙고 정신이 혼미한 나머지 몰래 다른 사람과 혼인 약속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의 일방적이고 비윤리적 처사 때문에 설씨녀는 자기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아버지에게 도리로써 諫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설씨가 애초에 지니고 있던 단정한 성품 때문이기도 하지만 信義를 버리고 그때그때의 利를 따르는 아버지의 잘못된 태도에서 촉발된 것이다. 설씨녀는 ‘信義를 버리고 식언하는 것’이 사람 된 도리가 아

31) 父引見曰: 聞公欲代老人之行, 不勝喜懼, 思所以報之, 若公不以愚陋見棄, 願薦幼女子, 以奉箕箒. 嘉實再拜曰: 非敢望也, 是所願焉. …… 父謂女曰: 始以三年爲期, 今既踰矣, 可歸于他族矣. 薛氏曰: 向, 以安親, 故強與嘉實約, 嘉實信之, 故從軍累年, 飢寒辛苦, 況迫賊境, 手不釋兵, 如近虎口, 恒恐見啗, 而棄信食言, 豈人情乎? 終不敢從父之命, 請無復言, 其父老且老, 以其女壯而無伉儷, 欲強嫁之, 潛約婚於里人, 既定日引其人, 薛氏固拒, 密圖遁去而未果, 至廐, 見嘉實所留馬, 太息流淚, 於是, 嘉實代來, 形骸枯槁, 衣裳藍縷, 室人不知, 謂爲別人, 嘉實直前, 以破鏡投之, 薛氏得之呼泣, 父及室人失喜, 遂約異日相會, 與之偕老. - 『삼국사기』 권 제48 「列傳」 제8 薛氏女

나라고 하는데, 인간의 보편적 情理에 대해 말함으로써 효 역시 인간성을 뛰어넘는 超法的 윤리일 수 없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설씨의 아버지는 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는 있지만 인간적 도리에서 벗어남으로써 설씨녀에게는 반면교사가 된다.

부/모의 존재가 전면에 드러나 효자/녀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태도를 변화시키는 효행설화에서는 자식의 자기실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삼국시대의 효행설화는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이 자식의 효행을 완성하게 하며, 효의 가치가 가족의 관계망 속에 있는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지만 후대로 갈수록 부/모의 존재는 효행의 대상으로만 기능하여 점차 그 목소리는 사라지고 전형화된 포즈로만 나타난다. 『삼강행실도』에는 남아 있던 설씨의 이야기가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는 손순의 이야기로 대체된 것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IV. 나오며

효행 설화의 주인공은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모습이 전면에 드러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지만 『삼국사기』 「列傳」과 『삼국유사』 「孝善」편 에는 부/모의 태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 있다. 처절한 효행과 그 포상에 서사의 초점이 놓여 부모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설화에서부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효행의 완성에 영향을 주는 가능성의 서사, 적극적으로 자식의 삶에 관여하여 목소리를 드러내 자식의 자아실현을 촉발하는 효행 서사까지 두루 포진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후대 효행설화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자식에게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깨닫고 행동하게 하는 부/모의 모습(반응과 태도)이 전면에 드러난다는 점이다.

‘貧女養母’와 ‘孝女 知恩’의 어머니는 딸의 처지와 심경의 변화를 눈치 채고 가슴의 통증을 느낀다. 그리고 딸이 자기 때문에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고통스럽게 울부짖는다. 딸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 나아가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하여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는 데서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통곡한다. 그런데 이 울음으로 딸과 어머니의 1차적 소통이 발생하고, 혼자서 어머니 봉양의 의미를 떠안아야 했던 과년한 딸은 어머니의 말 한 마디와 통곡소리로 인해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이 이야기의 소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모녀의 통곡 장면을 본 효종량은 이 장면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깨닫게 된다.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공감과 반응은 소통의 통로를 만들고 자식이 진정한 효를 깨닫게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眞定の 어머니는 자식의 뜻을 시험해 보고 출가하려는 아들의 뜻을 알고는, 곁에서 봉양하겠다는 진정한 마음을 뿌리치고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적극 피력한다. 설씨녀의 아버지는 자식의 의중을 외면하고 신의를 저버림으로써 설씨녀가 인간의 도리에 대해 간언하도록 한다. 두 설화는 모두 부모의 적극적 개입으로 자식이 진정한 도리를 찾고 깨달음을 얻어 자기실현을 이룬다는 점에서 효행의 완성 과정을 보여준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효행설화는 전형화된 효행중심 서사뿐 아니라 가족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변화하여 깨달음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유교와 불교라는 서로 다른 사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고려시대 이전의 열린 효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그 입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효’라는 가치가 정해진 전범에 따라야 하는 닫힌 이념이 아니라 늘 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임을 이들은 효행 서사를 통해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 물론 효의 완성 과정에서 김부식은 사회적 소통과 상층의 인식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깨달음의 문제를 화두로 삼은 일연의 관점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렇지만 이들 서사에서 공통적으로 부/모가 자식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 존재가 자식의 자아실현과 깊이 연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갈등과 소통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 윤리적 효의 성격과 그 실천에 대한 궁극적 해답이 분명해지는 반면, 타고난 효자의 효행 기록은 행하기 힘든 행위에 대한 감탄이 주조를 이루게 된다. 이후 『고려사』 「열전」 ‘孝友’ 편에 등장하는 효행 설화에서는 부모에 대한 추모나 복수 행위 같은 자기실현과는 거리가 먼 효행 양상이 나타난다. 위급하고 처참한 상황에서 효행의 주체자들은 충격과 눈물로 서사의 감동을 이룩해내기는 하지만 삼국시대의 설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내면의 변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孝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논문접수일: 12.08.20 / 심사개시일: 12.09.09 / 게재확정일: 12.09.21

<참고 문헌>

-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명종실록』, 『성호사설』
 『여유당전서』, 『삼강행실도』, 『동국신속삼강행실도』
 강덕희, 「한국 구전효행설화의 연구-부모독병의 치료효행담으로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21집,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1983, 367-338면.
 강명관, 『『삼강행실도』-약자에게 가해진 도덕의 폭력』, 『한국고전여성문학
 연구』 제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5-32면.
 강진욱, 『『삼국사기』 <효선편>설화 연구 I - 손순매아의 의미』, 『국어국문
 학』 93, 국어국문학회, 1985, 139-162면.
 강진욱, 「효자호랑이 설화에 나타나는 효 관념」, 『민속연구』 1집,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1991, 81-101면.
 권석환, 「효행설화 연구: 희생설화를 중심으로」,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1997,
 1-66면.
 김대숙, 「구비효행설화의 거시적 조망」, 『구비문학연구』 제3집, 한국구비문
 학회, 1996, 177-201면.
 김대숙, 「문헌소재 효행설화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연구』 제6집, 한국
 구비문학회, 1998, 21-44면.
 김병주, 『삼국사기』에 나타난 충효사상 연구- 「열전」을 중심으로, 공주대
 석사학위 논문, 2008, 1-55면.
 김복순, 『『삼국유사』 '진정사 효선쌍미'조와 일연과 김부식의 효 인식』, 『신라
 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0,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9, 37-60면.
 김성봉, 「경북지방의 효행설화의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1-71면.
 김세서리아, 「양명학의 몸 이해 방식과 새로운 유교적 여성관 모색」, 『한국
 여성철학』 제2호, 한국여성철학회, 2002, 71-99면.
 김수태, 『『삼국유사』 ‘향득 사지’조로 본 신라인의 효행』, 『신라문화제학술
 발표논문집』 30,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9, 83-121면.
 김영하, 『『三國遺事』 孝善篇의 이해』,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0, 동
 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9, 13-33면.

- 김희진, 「한국 고대의 효 사상 연구: 『삼국사기』·『삼국유사』·「금석문」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9, 1-63면.
- 남동신, 「大城孝二世父母條에 보이는孝와善」,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0,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9, 61-81면.
- 소은정, 「효행설화의 유형과 의미: 영남지역 설화를 대상으로」, 경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1-61면.
- 심우장, 「효행설화와 희생제의의 전통」, 『실천민속학』 10, 실천민속학회, 2007, 175-203면.
- 오종근, 「한국구전 효행설화의 연구-부모독병의 치료효행담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연구』 12집,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1987, 207-225면.
- 이병일, 「효행 설화 연구: 호남지역 효행설화를 중심으로」, 조선대 박사학위 논문, 2007, 1-124면.
- 이은봉, 『중국고대사상의 원형을 찾아서』, 소나무, 2003, 1-320면.
- 이정원, 「판소리 문학에서 삼강행실도의 수용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407-442면.
- 이지향, 「전북지역의 효행설화 연구」, 우석대 석사학위 논문, 2004, 1-80면.
- 이혜경, 「고사상과 고문화: 효문화의 생산과 『삼국유사』에서의 표현」, 『청소년과 효문화』 제18집, 한국청소년효문화학회, 2011, 77-97면.
- 이혜순, 「김부식의 여성관과 유교주의-『삼국사기』 여성 열전의 분석적 고찰」, 『고전문학연구』 11, 한국고전문학회, 1996, 3-24면.
- 전기웅, 「진성여왕대의 화랑 효종과 효녀 지은 설화」, 『한국민족문화』 25, 2005, 199-230면.
- 정운룡, 「『삼국유사』 ‘손순매아’조로 본 신라인의 효심」,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0,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9, 123-148면.
- 정인모, 「경남지방 효행설화 연구」,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92, 1-77면.
- 조범환, 「『삼국유사』 ‘貧女養母’條에 나타난 知恩의 효성」,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0,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9, 149-177면.
- 최혜진, 「효행설화의 구조와 의미- 여성의식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6집, 숙명여자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6, 155-174면.
-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홍영남·이상임(역), 을유문화사, 2010, 1-543면.
- 알프레드 포르크케, 『중국고대철학사』, 양재혁·최해숙(역), 소명출판, 2004, 1-804면.

Abstract

A Study on the Filial Story - Focusing on the Communication with the Actor and Target in the 『三國遺事』(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三國史記』(Historical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 Kang, Sung-Sook

This study is prepared to understand the filial story's communicative meaning from the aspects of Character's behavior. The filial story have typically didactic theme and it is not have enough room for another interpretations. But if we carefully analyze the filial story from the point of view of (1)the target of the filial duty [father/ mother]. (2) the actor of the filial duty [son/ daughter]. (3) the evaluator of the filial duty [witness/ recorder], we can understand the filial story's connotation.

In 『三國遺事』(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and 『三國史記』(Historical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the target of the filial duty plays an important part and communicates with the actor of the filial duty but there's no more communication in 『高麗史』(History of Korea). As the character's communication is lessened, the meaning of edification is emphasized.

Key words: filial story, 『三國遺事』(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三國史記』(Historical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father and mother, self sacrifice, self-realization, filial piety.